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35 호



주일 미사: 오전 9 시 (한국어, 영어), 오전 10 시 30 분(영어), 오후 12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 당 (46)	봉 헌 (217)	성 체 (506)	파 견 (19)
---------	------------	-------------	-----------	------------

2016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

1 구역 : 유 마리아(구역장),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양 유리안나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쟈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

2 구역: 이 마틸다(구역장), 이 그레이스, 장 글라라,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사비나

3 구역: 김 헬레나(구역장),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김 글라라. 이 율리안나.

4 구역: 김 유스티나(총 구역장),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린다,
 김 유스티노, 김희정, 고순영.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9/25	이 마틸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성인 복사
10/2	유 요한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0/9	이 마틸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0/16	박 니콜라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0/23	이 그레이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성인 복사
10/30	이 마틸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9/17/16	\$326	\$126	\$630

새 신자 교육 9월 부터 시작

9월 4일부터, 한인공동체 새 신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 하였습니다. 주위에 새 신자 교육을 받아야 되실분이나, 관심이 있으신분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 마가렛 자매님께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즐거운 보속

이화는 요안나 시인

문학의 등 뒤에 숨어 지낸 십년의 냉담을 끝내고 고해소 문을 두들기던 날, 신부님은 제게 매일 미사를 권했습니다. 몇 번, 몇 달, 몇 년의 횡수는 정해 주시지 않고 그냥 다녀보라고 말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째 매일 새벽 미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저녁형 인간이라 새벽에 일어나기는 지구가 거꾸로 도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 생(生)의 빙하기를 푸는 일인데 어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알람에 의지하고 싶지 않아 정신력으로 일어나려니 하룻밤에 열 번쯤은 깨어 시계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수십 년 길들여진 생체리듬을 바꾸는 데 몇 년이 걸렸지만 결국 몸이 정신에 굴복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아침형 인간이 되었고 눈 뜨면 새벽 5시. 정확한 알람 하나가 제 몸속에 살고 있는 셈이지요. 죄 사함의 대가로 주신 보속이 결국 저한테 선물이 된셈인데, 일단 평생 맛보지 못했던 새벽의 신비한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에는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도 하늘에 총총한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만 특별한 일을 해낸 듯 지금 말하고 있지만 매일 미사에 참례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잠이 없는 나이 든 사람은 물론 새파랗게 젊은 부부나 첫 성체 준비를 하기 위해 졸린 눈을 비비면서 성당 문을 들어서는 어린이들. 이들은 제가 깊이 잠들어 있던 시간에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몸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오래, 깊이 잠들어 있었던 셈이지요. 매일 성체를 하는 기쁨을 저는 정직하게 기쁨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문학적인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이지요.

어느 날 강론에서 신부님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동체 소식

교무금 납부 요망

교무금은 교회유지를 위하여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이며, 그 기원은 구약의 십일조에서 유래 합니다. 교무금에 대한 의무는 열심자와 냉담자, 성사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구별없이 모든 교우에게 부여된 의무이므로, 성실히 신자의 의무를 수행하시어, 교회유지와 사업에 도움을 주시고, 주님의 은총 또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교실 탁자와 의자 사용 과 정리

친교실에서 친교전과 친교후, 탁자와 의자를 피는 일과 정리하는일에 형제, 자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식사시에 필요한 탁자와 의자는 본인들이 가져다 피시고, 식사후에도 본인들이 사용한 의자와 탁자는 본인들이 원위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가을 피정 계획

지난주에 성경공부(성서통독)가 성황리에 시작 되었습니다.열심히들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의 여러가지 사정상, 우리 공동체가 2016년에 피정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정에 관하여,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구역장이나, 총구역장에게 전하여 주시면, 2 주간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2016년 가을 피정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의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한인 성당 골프 대회, 10월 2일, 12시 30분. River Lakes C.C.

매년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인공동체 골프대회를 10월 2일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차고, 즐거운 골프대회를 위해, 준비위원으로 일하실,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미사후에, 골프대회 준비를 위해, 간단한 회의를 갖겠습니다. 준비위원들과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하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소공동체(구역)모임 안내

오늘 미사 와 친교 후에 본관 친교실에서 성경봉독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두고 하신 말 같아 깜짝 놀랐지만, 매일의 독서나 복음은 모두 저를 두고 하신 말 들입니다.

제 근심이나 교만, 의심들을 어찌 아시고 정확한 대답들을 미리 주시는지! 하느님은 귀신이라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자선이나 희생이나 봉사를 넘어 죄에서까지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할 뿐입니다. 제가 기침만 해도 새벽 미사 탓이라고 식구들이 타박하지만 이 정도 종교 박해쯤이야 기쁨에 또한 기쁨을 더하는 일이지요.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이리 오묘하시니 저의 보속 행진은 하느님이 그만! 하실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도 저와의 미팅이 크게 나쁘지 않으신 것 같으니 그런 날은 쉽게 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교리 상식)

신령성체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신자가 성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성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지니고 성체를 모시고자 원한다면 성체성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신령성체 (神領聖體, Spiritual Communion)라고 부릅니다. 신령성체는 지극한 성체 신심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성체를 모시지 않고 마음으로 성체를 모셔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믿음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 「미사 전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